

어린이 책꽂이

▲어린이의 미래를 여는 역사·화해와 평화(제3권)=역사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편견도 없는 한·중·일 세 나라 어린이가 함께 탐험하는 역사책.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정세부터 시작해 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등 현재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한겨레아이들·9천500원>

▲인도술개=새와 인간이라는 한계를 뛰어 넘어 참된 우정을 보여주는 솔개와 소년의 이야기. 주인공 루크는 산림경비대원인 아빠를 따라 가족들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의 산림지대인 아님 팜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문학과 지성사·8천500원>

▲수확대왕이 되는 놀라운 숫자 이야기=오늘날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숫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숫자없이 수를 썼던 원시사회에서부터 아라비아숫자가 등장하기까지 수의 역사를 통해 감추어진 숫자의 비밀을 알 수 있다. <미래아이·9천원>

▲아델과 사이먼=사이먼은 가는 곳마다 물건을 잃어버려 늘 누나 아델로부터 핀잔을 듣는다. 잔소리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동생의 물건을 찾아주는 아델과 여유롭고 순수한 사이먼의 이야기가 서정적인 그림과 함께 펼쳐진다. <베를·북·9천원>

▲이중섭·희망을 그린 화가=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희망을 그린 화가 이중섭에 관한 이야기. 이중섭은 우리 민중을 소박하고 우직한 소에 비유해 일제에 억눌린 감정을 성난 소의 모습으로 그려냈다. <주니어랜덤·8천원>

# 알렉산더는 왜 헤라클레스를 흉내 냈나

## 이운기의 그리스 로마신화 4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올리브 나무 몽둥이에 사자 가죽을 걸치고 거기 기대어 쉬고 있는 헤라클레스.

‘드디어’ 출간됐다. 한국에 그리스·로마 신화 읽기 붐을 일으켰던 ‘이운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4번째권이 3년만에 독자들을 찾아왔다. 어린 시절 문고판으로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나 토마스 벌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해 있던 이들에게 2000년 처음 등장한 이운기의 신화 이야기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지식의 나열이 아닌, 완전히 체화(體化)된 이운기의 신화 이야기는 기존의 신화 서적과 달랐다. 그의 책에는 오랜 기간 신화의 현장을 답사하고, 관련 그림과 조각들을 직접 보고, 문헌을 탐구한 흔적이 역력히 배어 있었다. 여기도 ‘장미의 이름’ 등을 옮긴 번역가이자, ‘동인문학상’ ‘대산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로서의 맛깔스런 글쓰기까지 더해져 책은 읽는 재미를 더해주고 인문학 서적으로는 드물게 200만부가 팔렸다. ‘신화를 이해하는 12가지 열쇠’, ‘사랑의 테마로 읽는 신화의 12가지 열쇠’, ‘신들의 마음을 여는 12가지 열쇠’ 등으로 전편의 이야기를 진행해 나갔던 저자는 이번 책에서는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을 소재로 글을 풀어 나간다. 헤라클레스가 누구인가. 신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한 번은 들어봤을만한 인물이다. 태어난 지 여덟달만에 두마리의 뱀을 목졸라 죽이는 괴력을 발휘했던 헤라클레스는 강한 남성성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고, 알렉산더 대왕을 비롯해 고대(古來)로부터 그의 모방자는 넘쳐났다. 하지만 그는 불행한 운명을 안고 세상에 나왔다. 바람둥이 제우스의 아들인 헤라클레스

는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의 미움을 받아 자신의 손으로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만다. 그는 죄값을 위해 12년간 아르고스의 지배자인 에우피데스 밑에서 종살이를 하며 ‘12가지 과업’을 풀어나간다. 그의 과업은 다종다양하다. 우선 네메아 사자 등 괴물들을 처치하는 게 대표적이다. 30일 동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사자의 목을 조른 후에야 네메아의 사자를 처치한 헤라클레스는 껍질을 벗긴 사자 가죽을 옷 삼아 걸치고 다녔고, 이 때부터 사자 가죽을 올리브 나무 몽둥이와 함께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그는 머리가 아홉개 달린 물뱀 히드라를 잡으러 떠나고, 에뤼탄토스 산의 멧돼지를 산채로 잡아온다. 또 아마존 여왕의 허리띠를 훔쳐내고, 수년 동안 한번도 치운 적 없는 아우게아스의 외양간 청소도 떠맡는다. 저자가 헤라클레스에 주목한 이유는 험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 숙명을 타고 난 영웅이 자신의 과업을 풀기 위해 떠난 길에서도 끊임 없이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는 데서 인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또 방대한 이야기와 주요 신들의 이야기가 담긴 헤라클레스 신화를 ‘그리스 신화의 축소판’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2009년 발간될 5권에서는 ‘고향을 떠나 방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웅진지식하우스·1만3천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프레드릭 포사이드 ‘자칼의 날’

프레드릭 포사이드의 ‘자칼의 날’(국일미디어)은 내가 추리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작품이다.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추리소설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준 그 작품은 한 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다. 아, 추리소설을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구나! 그 신선한 충격에 나는 감동했고, 그때부터 추리소설에 대한 나의 인식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한국 추리문학은 미개한 상태였고, 추리소설하면 과거의 탐정소설 정도로 치부하면서 문학 외적인 불순분자쯤으로 여겨지던 때였다. 그것은 추리문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본격 문학이 아닌 것은 문학이 아니라고 편협하게 생각하다 보니 한국 문학은 변화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채 그들만의 잔치로 왜소하게 남겨 됐다. 그 사이 서구에서는 추리소설이 독서계를 점령해버렸고, 이웃 일본만 해도 1천명 가까운 추리작가들이 대거 등장해서 활동중이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 오늘날에도 한국의 추리문학은 변방에서 떠돌고 있고, 활동중인 추리작가라고 해도 고작 열 명도 채 안 된다.

코난 도일, 애거서 크리스티, ‘007’의 이언 프래밍으로 이어지는 영국은 추리의 본고장답게 또 한 명의 걸출한 하드보일드 추리작가를 배출했으니 다름 아닌 프레드릭 포사이드다. 그의 데뷔

##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결합



작인 ‘자칼의 날’은 자칼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살인청부업자가 주인공이다. 무대는 드골이 통치하던 1960년대 초 프랑스, 드골이 대통령에 되었을 때 프랑스는 알제리와 5년째 전쟁중이었다. 120여년 동안 프랑스 식민통치를 받고 있던 알제리인들은 독립을 위해 프랑스군과 치열한 전쟁을 벌였고, 프랑스는 그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지탄

을 받으며 고전하고 있었다. 드골은 대통령이 되자 과감하게 알제리에 대한 식민 통치를 끝내기로 하고 알제리 전쟁에서 프랑스 군을 철수시킨다. 이에 군의 일부가 종전에 반기를 들고 비밀결사 OAS를 조직, 드골 암살에 나선다. 프랑스 정보기관에 얼굴이 알려져 있는 그들은 베일에 가려진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하여 드골을 제거하기로 하고 자칼과 접선, 거액을 주고 그를 고용한다. 그것을 간파한 프랑스 수사기관은 총동원되어 자칼을 추적한다. 이때부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쫓고 쫓기는 드라마가 숨막히게 전개된다. 자칼이 외국에서 수사망을 뚫고 프랑스 국내로 잠입, 6·8광장에서 열리는 2차대전 승전 기념식장에 참석하는 드골을 노리고 사정거리 안까지 접근하는 과정은 가히 범죄의 미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고 드라마틱하다. 그곳까지 잠입하는 동안 자칼은 산부로, 또는 목발을 짚은 상이용사로 위장하기도 하고,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건의 살인을 저지른다. 잔인하고 잔혹한 그의 살인행각은 전율을 자아내기에 충분하고 경외감까지 느끼게 한다. 반면 그와는 대조적으로 아주 평범하게 생긴 초로의 형사 르벨의 추격선은 추적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작품 전체에 긴장과 활력을 불어 넣는다. 이 작품은 역사적 사실과 픽션을 교묘하게 뒤섞어 만들어진 한 편의 스릴러 추리소설 전범으로,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아류들이 많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됐다. <김성충<br><소설가 추리문학관장>



## 우정·사랑 그리고 인생 이야기

출리 가든 가오리 지음  
안녕, 언젠가 히토나리 지음



베스트셀러 ‘냉정과 열정 사이’(소담)를 쓴 남녀 작가의 소설 2권이 나란히 출간됐다. ‘출리 가든’은 에쿠니 가오리의 1994년 작으로 대표 장편소설이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사이인 주인공 가호와 시즈에는 평화롭지만 아슬아슬한 일상을 사는 젊은이들. 저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해지는 주인공의 우정과 이들을 둘러싼 인물들의 사랑 그리고 인생 이야기를 담백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초지 히토나리는 또 하나의 연애소설 ‘안녕, 언젠가’를 통해 삶 자체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1991년 작품. 소설은 태국과 일본, 25년의 세월을 오가며 진행된다. 태국에서 직장을 다니던 유카타는 토우코와 4개월간의 불장난 같은 사랑을 맺지만 약혼녀와의 결혼을 포기할 수 없다. 25년 후에 다시 태국에서 만난 이들은 그동안 서로 한시도 잊지 못했음을 확인한다. <소담·출리 1만원, 안녕 9천5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노벨상 역사에 남은 오류와 논란

노벨상 스캔들 하인리히 찬클 지음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는 노벨상은 과연 세계 최고의 공정성을 가졌을까. 독일의 과학전문 작가 하인리히 찬클은 ‘노벨상 스캔들’을 통해 이같은 의구심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팩트’를 제공한다. 저자는 노벨상의 역사에 남은 수많은 오류와 논란 거리를 들춰냈다. 물리학·화학·생리학·문학·평화상 등 노벨상 5개 분야의 50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알모니아 합성에 성공한 공로로 1918년 노벨상을 받은 프리츠 하버는 1차 세계대전에서 ‘가스전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끔찍한 대량살상에 동참했다. 제임스 듀이 왓슨은 1962년 유전자 구조를 발견해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나 저자는 왓슨이 1954년 노벨화학상 수상자 라이너스 폴링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DNA 3중 구조 모델을 빼돌렸으며 자신의 여동생을 통해 X선 구조 분석 관련 정보를 캐내려 했다고 주장한다. <랜덤하우스·1만5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http://cafe.daum.net/furumin

마늘주사 후루민을 치료하세요.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동산동 1-1 (주) 마늘주사 후루민

문의처: 마늘주사 후루민 대표이사 김성원, 원장님 및 일반 환자들을 모십니다.

Tel: 062-983-6883

바지속의 마법 - 달리는 "루스터핀츠"

루스터핀츠

공유하는 심리학 공리들을 상징하는 신인간 시공점

1577-2787